



TUDOR BLACK BAY GMT

튜더는 아이코닉한 버건디-블루 베젤과 조화를 이루는, 오묘한 매력의 오판린 다이얼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블랙 베이 GMT 라인을 확장한다. 새로운 모델 역시 자체 제작 칼리버를 장착하고 있다.

튜더 블랙 베이 GMT는 최적의 소재로 제작되었다. 먼저, GMT 기능으로 알려진, 매우 유용한 멀티 타임 존 기능을 탑재하여 현지 시각과 다른 두 시간대의 시각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블랙 베이 라인의 다른 모델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딥 블루와 버건디 컬러의 회전 베젤을 매트 버전으로 선보이며, 블랙 베이 GMT는 이 초기의 트렌디한 미적 요소에 경의를 표한다.

튜더는 블랙 베이 GMT의 아이코닉한 컬러 구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오판린 다이얼 옵션을 새롭게 추가했다. 완전히 하양지 않은 오판린은 다이얼에 은은한 실버톤을 감돌게 한다. 갈바닉 프로세스를 통해 다이얼에 새틴 화이트-그레이 마감이 적용되고 마커 주변을 어둡게 처리 하여 눈에 띄는 대비가 형성된다. 세기 중반의 상업 항공 붐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오판린 다이얼은 탁월한 가독성을 제공한다.





돔드 “오팔린”
다이얼. 갈바닉 마감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핸즈,
1969년 도입된 튜더 다이버 워치의
상징으로, 스위스 제조 A 등급의 슈퍼-
루미노바® 코팅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
스위스 공식크로노미터 인증 기관(COSC) 인증
및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갖추고 70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



새틴-브러시된 케이스,
직경 41mm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버건디와 딥 블루로 양극 산화된 알루미늄 인서트를
갖춘 GMT 기능이 특징인 양방향 회전식 베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3열 링크
“리벳 스타일” 브레슬릿 또는 패브릭
스트랩 중 선택 가능



별도의 등록 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이 요구되지 않으며 양도 가능한 5년간의 보증



최첨단 기능성

튜더를 상징하는 디자인적 특징 중 하나인 레드 스노우플레이크 GMT 핸즈가 24시간 동안 다이얼을 따라 한 바퀴를 돌며, 양방향 회전 베젤에는 24시간을 나타내는 눈금이 새겨져 있다. 버건디 색상은 낮 시간대를, 블루 색상은 밤 시간대를 표현한다.

직경 41mm의 스틸 케이스를 갖춘 블랙 베이 GMT 모델은 200m(660피트)까지 방수가 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새틴-브러시된 스틸 소재의 와인딩 크라운 튜브는 블랙 베이 라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특징으로, 케이스와 와인딩 크라운과 심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대조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오팔린 다이얼은 야광 처리된 시각 표시 덕분에 야간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한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

튜더는 블랙 베이 GMT 모델을 위해 GMT 기능, 점핑 아워 핸드, 역방향 날짜 설정 기능이 탑재된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를 개발했다. 이는 기술 발전에 대한 튜더의 접근 방식을 적절히 보여주는 것으로, 모듈을 추가로 쌓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구조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시계 애호가들을 위한 세부적이며 필수 사항이다.

칼리버 MT5652는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의 전형적인 외관과 마감을 가지고 있다. 새틴-브러시된 오픈워크 로터에는 샌드 블라스트 처리가 되어있으며, 브릿지와 메인 플레이트는 샌드 블라스트와 폴리싱이 번갈아가며 되어 있으며 레이저 장식이 돋보인다.

MT5602-U 칼리버는 견고함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2점 고정 시스템으로 견고해진 횡단 지지대를 통해 일정한 왕복 운동이 가능한 가변 관성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비자성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장착하여 완전히 조립된 시계에서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의 오차 범위는 6초(-2~+4초)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의 또 다른 특징은, 일명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Weekend-proof)” 파워 리저브다.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금요일 저녁에 시계를 푼 후 월요일 아침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시간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 사람은 주말이 필요할지 몰라도, 시계는 필요하지 않다.

브레슬릿, 자카드 직조 패브릭 스트랩

패브릭 스트랩은 튜더의 특징 중 하나로, 튜더는 2010년 업계 최초로 제품에 패브릭 스트랩을 포함한 시계 브랜드 중 하나다. 프랑스 생테티엔(St-Etienne) 지역에 위치한 줄리앙 포레(Julien Faure)사에서 19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카드 방식으로 짠 패브릭 스트랩은, 뛰어난 품질과 손목 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2020년, 튜더와 150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 기업인 줄리앙 포레는 파트너십 10주년을 기념했다. 두 회사는 줄리앙 포레가 제작한 패브릭 스트랩을 처음으로 장착한 헤리티지 크로노(Heritage Chrono)가 2010년 바젤월드에서 출시될 때부터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블랙 베이 GMT를 위해, 튜더는 베젤과 매칭되는 버건디 컬러의 직조 디테일이 가미된 블랙 스트랩을 선택했다. 이 모델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튜더의 특징인 풀딩 리벳 브레슬릿에서 영감을 받아 적용된 스테인리스 브레슬릿으로도 제공되며, 이 리벳 브레슬릿은 측면에 링크를 고정하는 리벳 헤드로 유명했으며, 이 링크는 특유의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미적 특징은 솔리드 링크와 레이저 마감 리벳 스타일 헤드와 같이 현대적인 방법이 반영되어 오늘날 튜더 시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랙 베이의 정수

다른 블랙 베이 라인과 같이, 블랙 베이 GMT는 1950년대 튜더 다이버 워치 다이얼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1969년 브랜드 카탈로그에서 선보인 후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알려진 튜더 고유의 각진 형태의 시침을 장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세대 튜더 다이버 워치의 특징이자 200m(660피트)까지 방수를 보장하는 빅 와인딩 크라운도 이 새로운 모델에 채택되었다.

블랙 베이 라인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워치메이킹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다. 단순히 클래식 시계의 재출시란 의미를 넘어, 현대에 깊게 뿌리를 내린 블랙 베이는 60년 동안 이어져 온 튜더 다이버 워치의 역사를 상징한다. 네오 빈티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 표준 이상의 제작 기술과 견고함, 신뢰성, 내구성, 정확성, 그리고 마감 품질을 자랑한다,

튜더 자체 생산 시설

블랙 베이 GMT를 포함한 모든 튜더 시계는 스위스 르 로클에 위치한 새로운 튜더 자체 생산 시설에서 튜더의 우수한 표준에 따라 조립되고 완전한 테스트를 거친다. 최고의 생산 관리 및 자동화된 테스트 시스템을 갖췄으며 워치메이커들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 새로운 첨단 시설은 3년간의 공사 끝에 2021년 완공되었다. 튜더의 브랜드 컬러인 레드로 외부를 장식한 이 생산 시설은 총 5,500 제곱 미터에 달하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에 설립된 튜더 무브먼트 생산 시설인 케니시(Kenissi) 생산 시설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케니시와 튜더 소유 계열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튜더는 고성능 메케니컬 칼리버의 개발과 생산을 통합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튜더는 이제 핵심 부품의 제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여 탁월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었다.

튜더 보증

1926년 한스 빌스도르프가 브랜드를 설립한 이래로, 그의 이상적인 시계 제조에 대한 비전에 따라 튜더는 가능한 한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시계를 제작해왔다. 이러한 경험과 시계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튜더는 모든 제품에 대해 5년간 보증을 제공한다. 이 보증은 별도의 등록이나 정기적인 유지 보수 점검을 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튜더는 시계의 모델과 일상적인 사용 범위에 따라 대략 10년마다 서비스 받길 권고한다.

튜더 #BORNTODARE 정신

2017년, 튜더는 브랜드의 도전 정신을 담은 #BornToDare라는 고유의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튜더의 #BornToDare 정신은 오랜 기간 동안 육지, 빙하, 하늘, 그리고 심해에서 과감하게 모험을 하는 이들의 손목에서 함께 해왔다. 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손목 시계를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튜더를 설립한 한스 빌스도르프의 혁신적인 비전과도 일맥상통하는 동시에, 첨단 워치메이킹 산업에서 놀라운 혁신으로 벤치마킹되고 있는 튜더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증명하기도 한다. 대담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최고의 엠버서더들이 이처럼 훌륭한 튜더의 #BornToDare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튜더 소개

튜더는 세련된 스타일과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다. 튜더의 역사는 역사는 롤렉스의 설립자 한스 빌스도르프가 “더 튜더(The Tudor)”라는 상표를 등록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그는 1946년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로 롤렉스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시계를 제공하고자 Montres TUDOR SA를 설립했다. 브랜드 탄생 이래 지금까지 튜더 시계는 가장 대담한 탐험가와 숙련된 전문가 모두에게 선택을 받아왔다. 오늘날 튜더 컬렉션에는 블랙 베이(Black Bay), 펠라고스(Pelagos), 글래머(Glamour)와 1926 등의 상징적인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튜더는 2015년부터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자체 제작 메케니컬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

**BLACK BAY
GMT**

레퍼런스 79830RB

케이스

폴리싱 및 새틴 피니시 된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베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양방향 회전
48단계 노치 베젤, 24시간 눈금이
새겨지고 매트 버건디 및 블루 컬러로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디스크

와인딩 크라운

튜더 장미 로고가 양각된 스크류-다운
와인딩 크라운, 새틴-브러시된 스틸 원형
와인딩 크라운 튜브

다이얼

갈바닉 마감의 돔드 오팔린 다이얼

크리스탈

돔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수심 200m(660피트) 방수

브레슬릿

폴리싱 및 새틴 피니시된 3열 링크의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슬릿 혹은 버건디
악센트가 가미된 블랙 패브릭 스트랩

무브먼트

칼리버

자체 제작 칼리버 MT5652(COSC)

양방향 로터 시스템을 갖춘 셀프-와인딩
메케니컬 무브먼트

일체형 구조

정확성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
(Swiss Official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인증

기능

다이얼 중앙에 위치한 시, 분 초침 및
24시간 시침

점핑 아워 핸드와 연동되는 3시 방향의
날짜창(비수정 범위 없음)

시간을 맞출 때 초침이 정지하여 정확한
시간 설정 가능

오실레이터

가변 관성 밸런스, 스크류를 사용한 미세 조정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시간당 진동수: 28,800회(4Hz)

총 직경

31.8mm

두께

7.52mm

보석 수

28개

파워 리저브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



TUDOR



Swiss price
(VAT incl.)
CHF 4'100.-



Swiss price
(VAT incl.)
CHF 3'800.-

<https://tudor.watch/Pressroom>

